

옛 임실극장, 도심재생 랜드마크로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국가공모 선정 영화관·도서관·장병쉼터 등 55억원 투입

임실읍내에 흉물로 방치됐던 (구)임실극장이 리노베이션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일자리, 복지까지 두루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한다.

임실군은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국가공모사업에 '개봉박두 뉴-임실극장' 사업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개봉박두 뉴-임실극장'은 임실군민들의 문화중심으로 일익을 담당해오던 인구감소와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밀려 폐업한 후 도심의 흉물로 남아 있던 (구)임실극장을 리노베이션하여 지역민의 새로운 멀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으로 국비 20억원과 군비 35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기존 임실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작은영화관을 이곳으로 옮겨 쾌적한 환경과 접근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어린이 전용 작은도서관도 입주시켜 지역의 아동 및 어린이에 꿈을 심

어주고, 창의력을 길러주는 '신개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35사단이 주둔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군 장병들의 외출 외박 시 휴게공간이 될 수 있는 '열린 쉼터'로 조성한다.

특히 지역 내 산업체 및 영농기 인력 수급을 위한 로컬 JOB센터 유치를 위한 공간도 마련하여 문화와 지역의 일자리가 함께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군은 (구)임실극장 주변을 지역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비 10여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임실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작은 목욕탕도 건물에 추가하여 주민복지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근 부지에 주차장 또한 조성하여 임실터미널과 임실시장이 인접한 점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군은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국가공모사업에 '개봉박두 뉴-임실극장' 사업이 선정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건강한 여름나기 준비 만반

9월 30일까지 특별대책기간... 폭염 저감시설 설치 확대

남원시가 올 여름도 폭염에 대비해 시민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저감시설 설치, 도심 수영장운영, 도시공원 조성, 경로당 냉방기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먼저 요천 변 춘향교에서 십수정까지 100m 구간에 오는 9월 말까지 쿨링포드 시스템을 시범 설치해 시민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고 있다.

쿨링포드 시스템은 물을 수도관과

특수 미세노즐을 통해 빗방울의 1000만분의 1크기의 인공 안개를 분사하는 장치로, 분사된 물이 기화하면서 주위의 온도를 3~5도 정도 낮춰주고,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을 줄여 대기를 깨끗하고 시원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이 시스템은 기온이 30℃이상, 습도 70%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감지되어 가동되는 시스템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3분 가동하고 1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시민 반응과 효과를 분석해 향후 쿨링포드 시스템 설치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통동사무소 인근도심에 설치해 큰 인기를 얻었던 물놀이장 '물방개 워터파크'를 올해에도 9월 중순까지 운영하며, 어린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상시배치하고 주차장 34면을 추가로 조성해 가족단위 피서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남원시는 도심 곳곳에 교(관)목 3만6000본과 다년생 초화류 20만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무궁화, 나무수국, 산철쭉, 황매화, 아팝나무, 홍가시나무 등 3만5092주를 심어 시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 4억8000만원을 들여 경로당에 냉방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8대 임실군의회가 군민주도형 열린의정을 앞세우며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임실군의회 열린의정 '빛났다'

개원 1주년 기념식 갖고 새로운 각오 다져 110건 안건 처리·사회적 약자 조례 개정

제8대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가 군민주도형 열린의정을 앞세우며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임실군의회는 9일 기념식을 열고 '열린의정, 으뜸의정'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의미깊은 자리를 가졌다.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신대용 군의장을 비롯한 7명의 동료 의원들과 심 민 군수 및 국실과원소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신대용 의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군의회는 명목적이고 군민의 동의를 구하는 초보적 참여방식을 탈피, 군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의의 전당으로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했다"며 "형식적 절차보다 내용을 중요시하는 읍면 순회간담회 등 군민 주도형 의회운영에 충실해 왔다"고 전했다.

실제 군의회는 지난 1년간 주민 중심의 의회운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전개했다는 평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주요 성과를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입지에 따른 난개발과 주민의 마찰을 방지하고자 계획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역 어르신과 지역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정했다. 총 117일간 3번의 정례회와 8번의 임시회를 열어 110건의 안건을 처리, 주민생활에 밀접한 안건 처리에 적극 나선 것도 성과로 꼽힌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뒤따른 지역현안 이슈와 관련해서도 집행부와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이루며 주민의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한층 강화, 행동하는 의회상을 구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 토양정화사업 변경등록 행정처리 철회결의안 채택 등 군민이 피부로 와닿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전국 최초 행랑채 300동 철거 계획 수립

순창군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행랑채 철거 지원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군은 올 초,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4억8000만원을 투입, 행랑채 300동 철거 계획을 수립했다.

황 군수가 행랑채 철거를 공약사업으로 내건데에는 행랑채 지붕 대부분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마을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슬레이트가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비용문제로 농가들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황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간 것이다.

군은 올해 첫 사업으로 계획수량 75동 중 38동이 철거됐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일반지붕 행랑채 80만원, 슬레이트지붕 행랑채 180만원을 순수 군비로 보조해 준다. 단, 창고나 축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심 민 임실군수, 현장 행정 '비지담'

심 민 군수가 본격적인 장마·태풍 시기에 대비한 핵심사업 추진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

9일 심 군수는 가장 먼저 운암면 생암리의 운암특화단지를 방문하여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현장행정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이어 신대면 금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구와 시목소하천 공사현장을 찾아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시기에 대비한 재해재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무더위 속에 고생하는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운암특화단지 조성은 운암면 소재지이주에 따라 생계타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운암면 생암리 일대에 부지를 성토하여 이주민에게 생산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달 착공을 시작해 현재 활발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6월에 부지성토와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안정적일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는 2017년부터 3년간 30억원을 투자해 금정리 일원 0.7km의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시목소하천 정비공사는 2014년부터 6년간 42억원을 투자해 오곡리 일원 소하천 3.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준공이 예상된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향후 장마기간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발생하는 집중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재산보호에도 크게 이바지 할 전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친절한 의료기관 만들기 방안 논의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9일 관내 106개 의료기관 종사자와 친절한 의료기관 만들기 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환자응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편안하고 친절한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 홍보대사인 친절강사 모건우 씨가 강사로 나섰다.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친절교육에서 모 강사는 '나의 친절은 곧 나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친절과 사랑은 배운 만큼 결국은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전달했다.

박은순 보건지원과장은 "의료기관 친절교육은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살맛나는 천년 남원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